

## 적중 자료

### Step 1

### EBS 지문

#### 수능완성 147(나) 브레턴우즈 체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 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다. 이를 통해 제1·2차 세계 대전 사이의 변동 환율제에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와 이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반면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 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했다.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금 본위제\*하에서는 고정 환율을 통한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이 최고의 목표였으므로, 경상 수지 불균형은 전적으로 국내 가격의 변동으로 해결했었다. 따라서 금 본위제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상 수지 적자국의 경우 적자만큼 통화 또는 금이 유출되므로 국내 경제의 통화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상품 및 노동의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값싼 임금과 원자재를 기반으로 경쟁력이 회복되며 그 결과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줄어들어 경상 수지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반대로 경상 수지 흑자국의 경우 그만큼 통화량이 증대되어 가격이 인상되고, 이는 곧 경쟁력의 저하로 귀결된다. 즉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게 되어 경상 수지 흑자가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경상 수지에 따라 국내 통화량과 국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금 본위제의 고정 환율제에서는 국내 경제를 관리하기 위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비해 브레턴우즈 체제는 국내 경제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을 연계시켰던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의 또 다른 요소는 극히 비자유주의적인 국제 금융 질서이다. 브레턴우즈 협정에서 고안된 국제 금융 질서는 국가 간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개별 국가들에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던 것이다. 국제 금융의 자유화를 억제시킨 근본적 동기는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는 데 있었다. 첫째, 자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은 거시 경제 정책에 장애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조세, 인플레이션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자본 유출이 일어날 경우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이 원만히 작동할 수 없으므로, 이를 막기 위한 강력한 자본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둘째,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하에서는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과 이를 기반으로 한 자유 무역 질서가 위협을 받는다. 대규모 자본의 빈번한 이동은 환율 체제의 변동을 가져오게 되고 각국의 경상 수지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여 결국 보호주의의 정치적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므로, 국가 간 자본 이동이 통제될 필요가 있었다. 요컨대 고정 환율제와 독자적인 통화 정책, 국가 간 자유로운 자본 이동은 동시 성립이 불가능하므로,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을 위해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브레턴우즈 체제에는 국내 경제와 국제 경제를 연계시킨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성격이 그대로 구현되어 있었다.

\*온스(oz): 무게의 단위. 금 1온스는 약 31.1035g.

\*태환: 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꿈. 또는 그런 일.

\*금 본위제: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통화의 가치를 재는 제도.

## 구조체크

주 제: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구현된 연계된 자유주의

1문단: 금 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였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

2문단: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은 보장되지만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제1차 세계 대전 이전의 자유주의 금 본위제

3문단: 국내 통화 정책의 자율성과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을 연계한 브레턴우즈 체제

## 지문요약

이 글은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 했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는 고정 환율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상 수지 불균형 해결을 위한 일시적인 환율 조정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국제 통화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 또한 국가 간 자본 이동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고정 환율 유지와 각국의 국내 경제 정책적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려 했다. 국제 통화 질서의 안정성과 국내 거시 경제의 안정성을 연계하면서 자유로운 무역 질서를 추구함으로써 연계된 자유주의를 구현하려 했던 것이다.

## 본문 속 배경지식

### 1. 금 환 본위제

국내에서는 지폐와 주화를 유통시켜 놓고 국제거래의 최종결제는 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다른 금본위국의 외국 환, 즉 금환(금으로 태환(兌換)할 수 있는 채권)을 일정한 시세로 매매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내통화를 금과 결부시키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한 나라가 금환본위제도 또는 금지금본위제도(金地金本位制度)를 채택하고 있어야 한다. 금지금본위제가 국내에서의 금의 절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이 제도는 금의 국제적 편재를 고려하여 국제경제면에서의 금의 절약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제1차대전 이후 특히 동양제국과 기타 후진국에 널리 보급되었다. 중앙은행은 금과 결부되어 있는 외국환을 보유하여 이것을 국내준비에 충당하며, 이를 위해서 금융당국은 외국환을 일정한 시세로 매입·매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본위화폐로서는 지폐를 사용하고 주화는 전부 소액보조화폐로서 사용된다. **금환본위제도에는 화폐발행준비로서 금을 보유하지 않고 전부 외국 환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 금환본위제와, 준비의 일부를 금으로 충당하고 다른 일부를 외국환으로 충당하는 혼합금환 본위제의 2종류가 있는데, 후자가 실제적으로 많이 채택되고 있다.** 제2차 대전 후의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금환 본위제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환본위제 [金換本位制, gold exchange standard] (경제학사전, 2011. 3. 9., 박은태)

### 2. 브레턴우즈 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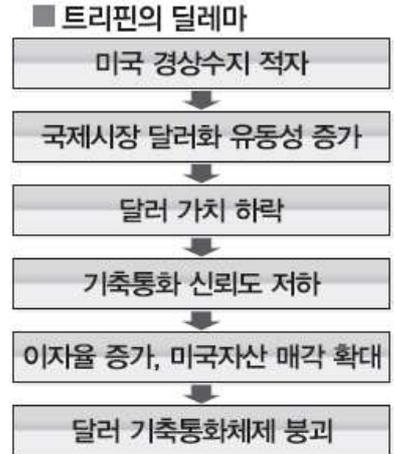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성립된 브레턴우즈 체제는 금 환 본위제이면서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우선 금 1온스당 35달러로 달러의 금 태환\*을 보장하고, 각국 통화의 가치를 달러화에 고정했다. 이를 통해 제1·2차 세계 대전 사이의 변동 환율제에서 벌어졌던 각국의 경쟁적 평가 절하와 이로 인한 국제 통화 질서의 불안정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반면 일시적·구조적인 경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환율 조정이 허용되었다. 경상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환율 인상을 허용함으로써, 환율을 유지한 채 경상 수지의 균형 회복을 위해 모든 부담을 각국의 국내 경제가 지게 되는 사태를 막으려 했다.

### 3. 예상

1. 화폐의 원리와 관련지어, 신뢰 등
2. 역사와 관련지어, 백동화 등
3. 법과 관련지어, BIS의 전신, 말랑말랑, 딱딱한 법
4. “트리핀 딜레마”, 암호화폐 떡밥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는 준비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활히 쓰이기 위해 풀리려면 준비 통화 발행국의 적자가 늘어나고, 반대로 준비 통화 발행국이 무역 흑자를 보면 준비 통화가 덜 풀려 국제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하는 역설이다. 특히 1944년 출범한 브레튼 우즈 체제하에서의 역설을 가리킨다.

미국 달러가 직면한 대표적인 불균형 문제인 트리핀 딜레마(Triffin's dilemma)를 푸는 데 암호화폐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세인트루이스 지사의 연구 부문을 이끄는 부회장이인 경제학자 데이비드 안돌파토(David Andolfatto)가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온라인으로 진행한 질의응답 중에 암호화폐의 새로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안돌파토는 트리핀 딜레마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 "트리핀 딜레마는 세계의 기축통화로 쓰이는 통화를 발행하는 나라가 당면하는 양날의 검을 잘 나타낸다. 만약 민간에서 발행하는 암호화폐(private cryptocurrency)가 현재 전 세계 각 나라의 외환 보유고에 있는 미국 달러화를 대체한다면 미국 달러화가 당면한 트리핀 딜레마는 해결될 것이다." 이 밖에도 암호화폐가 신용화폐로서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이 나왔다. 안돌파토는 위의 두 질문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남겼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민간에서 발행한 돈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달러의 발행과 거래를 굳이 탈중앙화된 합의 방식을 거쳐 분산원장에 기록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달러가 암호화폐로 대체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안돌파토는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돌파토는 암호화폐 수요가 현재 기축통화의 수요를 대체할 만큼 높지 않다고 말하였다.



위키피디아

### 예상

1. 화폐의 원리와 관련지어, 신뢰 등
2. 역사와 관련지어, 백동화 등
3. 법과 관련지어, BIS의 전신, 말랑말랑, 딱딱한 법
4. "트리핀 딜레마", 암호화폐 떡밥

금본위제도는 1816년 영국이 채택한 자국의 통화제도가 네트워크 외부효과(effect of network externalities)를 보이면서 187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정착된 국제통화제도이다. 이 제도는 모든 나라가 자국통화의 가격을 금과 일정한 비율로 고정시키고 자국이 가지고 있는 금 량의 규모에 따라 통화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금본위제 회원 국가들의 통화가 금에 의해 뒷받침되어 졌다는 것이다. 금은 물리적이고 자연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희소가치를 가지면서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왔던 물질이다. 이런 금이 화폐의 기준 축으로 사용되었기에 국가들의 통화는 시장행위자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사용되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금의 치명적인 약점은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금본위제도가 성립되고 얼마 있지 않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경제가 성장하고 교역규모가 증가할수록 이에 상응하게 유동성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화발행에 필요한 금생산량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관계로 말미암아 이에 부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부족한 금 량을 보완하는 방법은 지폐를 유통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는데 이때 중요한 문제는 이전의 금화에서 유지되어졌던 가치와 가격의 비분리, 즉 통화가격과 실질가치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금화와 같은 경우는 통화가격과 금 실물가치가 분리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지만 자체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있지않는 지폐의 경우는 가치와 가격이 분리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지폐의 발행과 유통량이 커질수록 가치와 가격 간에 괴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명목적 가치만을 가진 지폐 발행이 생산된 물질적 가치(부)에 대한 강압적 점유행위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지폐 발행과 유통은 단순히 통화안정성의 문제가 아니라생산, 사회 및 정치적 안정성의 문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국가들은 이 문제를 적절한 금준비금(gold reserve) 확보를 통해 지폐의 태환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이렇게 볼 때 태환성 유지 문제는 금본위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된다. 그런데 많은 경제학자들은 금본위제도 하에서 태환성의 문제가 시장의 자동조절메커니즘에 의해 해결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작동되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주장의 근거는 흠의 가격-정화 흐름 메커니즘(price-specie flow mechanism)에 있다. 이 이론은 통화가 금보유량에 맞추어 발행되고 자유로운 금유출입이 허용된다면 가격-정화 흐름 메커니즘에 의해 태환성이 자동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금본위제도의 작동과 유지는 시장의 자동조절메커니즘에 의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제도 및 정치적 개입에 의한 것이었다. 아이켄그린이 지적하듯이 태환성은 시장원리에 의해 자동적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중앙은행과 같은 제도적 개입을 통해 할인율, 이자율 조정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태환성을 유지하려는 정책들을 꾸준히 지속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태환성이 위태로울 때에는 국가가 국내 경제를 희생하는 디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노력들이 있었기에 태환성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어려워지는 정치경제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자 금본위제도는 작동을 멈추고 유지되기 어려워졌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노동당과 같은 노동자 지지정당들이 등장하자 디플레이션 정책 추진은 어려워졌고 국제협력 또한 어려워지면서 금본위제도는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전간기 기간 동안 금본위제도를 복원시키려는 노력이 물거품이 된 후 나타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는 브레튼 우즈 체제였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만들어질 당시부터 시장원리에 충실하였다기보다는 영국과 미국 간의 향후 국제통화 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경쟁이란 정치적 특성을 띠고 있었다. 이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으로써 미국이 제안한 안이 브레튼 우즈 체제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그 중 브레튼 우즈 체제의 작동과 유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특징은 금본위제도와 유사하게 금태환성 문제였다. 브레튼 우즈 체제 탄생 시점은 이전보다 교역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었기에 금본위제도 시절처럼 모든 국가들의 통화가 금량에 의해 뒷받침되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브레튼 우즈 체제는 편법을 동원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기축통화로 사용될 미국의 달러만을 금에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만을 금 1온스 = 35\$로 고정시키고 다른 국가들의 화폐는 금이 아닌 달러에 페그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미국통화만이 엄격한 금태환성 의무에 놓이며 다른 국가들은 이런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볼 때 브레튼 우즈 체제의 원활한 작동과유지는 당시 패권국가였던 미국이 금태환성 의무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 여부에 달려있었다.

하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에는 미국의 금태환성 의무가 지켜질 수 있는 조정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금본위제도와 달리 미국의 달러만이 금에 연계되고 자본통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던 상황에서 흠과 같은 가격-정화 흐름 메커니즘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더욱 더 큰 난점은 금본위제하에서 국제수지 조정메커니즘의 핵심

이었던 국가(중앙은행)의 디플레이션 정책 같은 것조차 정치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당시 는 대공황의 경험, 케인스주의의 등장, 노동세력의 확산 등과 같은 정치·사회적인 조건들의 변화로 인해 완전고용과 성장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국내외적인 합의가 지배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튼 우즈 체제 초기에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과 일본과 같은 여타 국가들이 전쟁의 후유증 속에서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당시 이들은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및 태환성 회복 문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국만을 바라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미국은 최종대부자로서 국제수지적자를 운영하면서 유럽 및 일본의 국제수지와 태환성 회복을 도와주었다.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이런 국제수지적자 운영이 달러의 태환성 문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은 이유는 당시 미국이 무역 및 자본수지 등에서 커다란 흑자를 낼만큼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 및 일본이 태환성을 회복하고 경제성장이 본 궤도에 오른 반면 미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악화되던 시점인 1958년 정도부터는 달러의 태환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유럽과 일본은 자신들이 회복되던 시점까지 미국의 도움을 받아 달러를 국제준비금으로 비축하여 왔었다. 그런데 달러의 준비금 축적은 달러의 금태환에 대한 우려가 없을 때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만일 축적된 달러 준비금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 준비금을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태환성 신뢰도에 금이 갈 수 밖에 없으며 조정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은 금태환성 의무를 지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 이런 일이 1950년대 후반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변화된 정치사회적인 조건은 미국으로 하여금 디플레이션 정책보다 국내경제 및 베트남 전쟁과 같은 패권유지비용을 위한 통화팽창정책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1960년대 초 미국의 팽창정책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증가, 경쟁력 상실 그리고 국제수지적자 등의 문제만을 증가시키면서 달러 태환성에대한 신뢰도를 더욱 추락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다. 특별한 조정장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미국은 국제수지적자 증가의 문제를 달러 태환성의 축으로 사용하였던 금을 판매하면서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브레튼 우즈 체제 초기에전 세계 금의 3/4 정도를 가지고 있던 미국의 금보유량은 1958년 이후부터 브레튼 우즈 체제가 붕괴되던 1971년까지 급감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기축통화로서 달러의수명이 다해간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결국 미국은 달러의 금태환성 위기가 심각해지고 기축통화인 달러의 시노리지 특권에 대한 국제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금과의 연계성을 끊어버리는 금태환 정지선언을 함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는 더 이상 작동될 수 없게 되었다.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II의 특징과 메커니즘: 화폐의 제도·정치적 특성을 중심으로



보라: 세계 경제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영향: 기존에는 각국 화폐/금괴철이 가능했으나, 보편화유트 체계 이후에는 달러/금괴철만 가능

진행: [www.imf.org](http://www.imf.org) 유엔의 부가가치서서 미국이 패권을 장악 되었다. IMF, BRD 창설

진행: 그러나,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국가 부채 증가 및 유럽의 부상으로 금으로 교환하는 수요 증가

결과: (닉슨쇼크) 1971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을 교환하는 금태환을 정지시킴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함 후 각국 통화와의 환율 달러에 고정시켰다.

브리튼유트 체계

